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26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됐다. 월주 대종사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대종사는 그렇게 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월주 대종사 문도들이 만장을 들면서 법구를 이운하고 있다.



문도 대표 스님들이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거화를 하고 있다.



불자들은 아미타불 염송을 하며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월주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대로 안치되기 전 대종사의 손길이 묻어있는 금산사를 돌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 시대의 인로왕보살… 속환사바 하소서”

7월 26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종정 예하 증명… 법어에서 상찬
불교계 안팎서 각계 인사들 참석
조사·추모사서 가르침 계승 다짐
美대사관 등 해외서도 애도 물결

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불교계 안팎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소화 방침에도 생전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이 금산사를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특히 각계의 추모사와 추도사, 조사와 조전 등이 수없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대만 불광산사와 미국 대사관 등 해외에서도 이례적으로 조전을 보내와 국내외,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던 대종사의 넓은 활동상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장의위원장 원행)는 7월 26일 김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월주 대종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만월당에 안치됐던 대종사의 법구가 처영문화기념관으로 운구된 데 이어, 오전 10시 명종 5타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념관 내에는 50명만 자리했으며, 그 외 대중들은 외부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스님의 떠나는 길을 마음으로 배웅했다.

영결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이어졌다. 인묵 스님과 덕산 스님의 영결법요에 이어 상좌 대표 도영 스님과 도법 스님이 헌다와 헌향으로 스승을 추모했다. 이어 지명 스님의 행장 소개 후, 월주 대종사의 생전육성법문을 통해 드높았던 가르침을 재차 되새겼다.

월주 대종사의 삶은 한국불교 근현대사 곳곳에 스며 있었다. 종단 내부로는 불교정화와 종단 개혁의 중심에 섰다. 10.27법난으로 아픔을 겪은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으로 개혁종단을 이끌며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워 종단의 위상을 제고했고 종단의 행정체계와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동시에 대사회적으로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족적을 남겼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를 삶으로 증명했을 뿐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임종게로 남겨 후학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장의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한다”며 “1961년 금산사 도량에 주지로 부임한 후 60여년 간 손수 어루만지시던 돌덩이와 초목은 지금도 제자리인데 대종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며 스승을 떠나보내는 비통함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했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였기에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온다”며 “매사 공심을 앞세우며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은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월주 대종사는 생사무상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를 단행하신 이래 수행과 포교와 중생구제가 다르지 않음을 일생일관(一生一貫)으로 실천하신 선지식이었다”며 “또 산중불교만이 아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중생교화를 위해 몸소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과 함께하며 동체대비의 보현행원을 시현했다”고 상찬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월주 대종사는 현대불교사를 이끌어 온 산 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 정신적 기둥이었으며 또한 불교의 미래를 여는 혜등이요, 인로왕보살이었다”며 “지금 종도들은 정신적 기둥을 잃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무너진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생몰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기용(機用)으로 은현자재(隱現自在)함을 한 번 보여달라”고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문 스님은 조사에서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고 하시는 스님의 일생은 보살의 삶 그 자체였다”며 “삶의 모든 순간은 찰라 생하고 찰라 멸하니,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며 행복한 세상이다. 오늘 이 자리는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원각도량인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는 “무시무종(無始無終)하며 시종(始終)이라 할 것도 없으니 이 또한 진공묘유의 가르침으로 여기며 속환사바하여 환희증명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은 “모악 영산에 달빛 무성하고 금산 동천에 물소리 흥겨운 성하지절(盛夏之節)에 평생 문수의 머리와 보현의 손발로 입전수수(入廛垂手)하시던 자애로운 큰스님 영전에 일주청향(一炷淸香)으로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월주 대종사께서 조계종 28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직후 고단한 한국불교계를 으뜸으로 이끄셨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며 “스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대한민국을 선진사회로 이끄는 초석이 됐다, 스님의 큰 뜻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에서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어른이신 월주 대종사께서는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종사 원적 직후 7월 23일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 스님들, 불교계 주요 스님들 뿐 아니라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장 등 이웃종교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前 검찰총장 등 주요 대권주자들도 자리했다. 또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안숙선 명창 등 월주 대종사와 인연이 깊었던 인사들이 찾아와 조사를 통해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다비식이 이어졌다. 대종사의 법구는 영결식이 진행된 처영문화기념관을 나서 보제루와 범종각, 대장전, 대적광전을 지나, 미륵전, 적묵당 등 대종사의 손길이 담긴 경내 곳곳을 돌아 연화대로 이운됐다. 수백기의 만장이 줄지어 장엄한 가운데 장의위원 스님과 문도들이 위패와 영정을 안고 함께했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속환사바하소서!”

다비의례에 이어 대종사의 법구가 거화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대종사의 법구에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산화하기 시작했다. 연화대를 둘러싼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염불을 하며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낌으로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불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가르침을 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그렇게 영원한 적멸의 세계에 들었다. 그가 남긴 고고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생생히 이어질 것이다.

특별취재팀=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도사



이 山中의 主人이 세연을 접고 원적을 이루자 母岳山이 솔바람 소리를 멈추고 비통함에 젖어 울고 있습니다. 만물도 슬픔을 참지 못해 몸을 뒤척이며 산 빛도 빛을 바꾸어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森羅萬象이 옷깃을 여미고 애도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어두운 가슴을 깨달음으로 밝혀주고 無生의 智慧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宗門의 눈 밝은 宗匠인 太空堂 月珠大宗師께서 圓寂을 이루어 還歸本處하셨기 때문입니다.

큰스님!

스님은 우리 현대불교사를 이끌어온 산 證人이요 살아있는 역사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미래를 여는 慧燈이요, 引路王菩薩이었습니다. 스님의 隨緣行化는 너무 광활하고 大方無外하여 역임한 자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金山寺 住持를 비롯, 宗團의 높고 낮은 地位를 모두 거치고 宗會議長, 元老議員은 물론이고 總務院長을 두 번이나 역임하면서 宗團中興의 礎石을 놓고 改革을 추진하여 오늘의 宗團을 安定시켰습니다.

昨夜石女生獅子(작야석녀생사자)
今朝鶴舞飛蒼天(금조학무비창천)
어젯밤에 석녀가 사자 한 마리를 낳더니
오늘 아침에는 학이 춤을 추고 하늘로 날아가네.

불기 2565(2021)년 7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 분향

영결사



오늘 저는 저의 은사이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적요의 세계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50여 성상을 넘게 보아온 모악산의 산자락은 오늘 왜 이리도 처연하고 적막할 뿐입니까? 출가사문으로 생사와 별리의 경계는 마땅히 넘어서야 하겠지만, 스승을 보내드려야 하는 이 비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일평생 우리 종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셨던 ‘종문(宗門)의 사표(師表)’ 이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종단의 대소 소임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두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종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현보살이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삶은 보살도(菩薩道)와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주 대종사의 보현행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지구촌공생회 운동으로 대표됩니다. 대종사께서는 항상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시절, 대종사께서는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을 건립하여 할머님들을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자취가 너무도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이제 남겨진 저희 종도(宗徒)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여 치유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태공당 월주 대종사이시여!
속환사바(速還婆婆)하소서 !

불기 2565(2021)년 7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경배(敬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영상 뉴스는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